11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땡볕에 만난 나무 그늘과 우중에 만난 처마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음속 한 자리를 늘 비워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70여 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허리를 깊게 휘감고 있는 녹슨 철조망을 다 걷어 주시고, 이 백성의 마음속에 난 골 깊은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십시오.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 흘리던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남과 북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102. 나라사랑(4)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사 60:17-22 ····· I. 인도자
II. 이용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 참빛 찬양대

말 씀 …… **구원의 성벽**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특 송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브라스밴드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십니다. 다른 것을 빛 삼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열어 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벽처럼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이범석 목사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다시 생각해야 하는 위기

- 황필호 교수와 장일순 선생의 인터뷰 (1992년 6월 12일자) -

황필호 : 그런데 선생님, 요즈음 병환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장일순 : 작년 6월에 위암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황필호 : 그런데 환자 같지 않으세요.
장일순 : 아유 저, 글쎄올시다. 우리말에 앓으면 벼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을 앓으면, 이 암이 시대의 병 아닙니까?
황필호 : 하하하, 그래서요.
장일순 : 그러니까, 자연도, 지구도 암을 앓고 있고, 자연 전체가 암을 앓고 있는데,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사람이라고 왜 암에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느라고,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너 좀 앓아봐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황필호 : 그래서 앓는 것을 벼슬한다 그렇게 이야길 합니까?
장일순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시고 가지요.

황필호 : 특별히 선생님, 옛날에, 정치운동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싫어하십니다만, 그래도 사회운동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다가 풀 한 포기를 가꾸는, 이렇게 변하셨다고 할까, 그렇게 되신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장일순 :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문명 자체가 계속 자연을 파괴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마저도 망가뜨려가고, 또 그 속에서 생산되는 우리들의 농산물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래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땅이 죽고 사람이 병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자연이,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고, 그것은 정치 이전의 문제요 근원적인 사람의 문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륜이 없는 거라. 살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막힌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길을 틔워주는 방향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황필호 :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선생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장일순 : 글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최소한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다 가면 지극히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넘어지지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고, 그런 꼬라지예요.

황필호 :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일순 :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천당이고 지옥이고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또 보상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재미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진 자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지옥을 자청했고, 또 부처님께서도 다 극락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남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황필호 :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네요.

장일순 : 어차피 어떤 한 시대가 가고 변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명 자체가 지금 종말을 고하는 세상이고, 지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대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단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위기에 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든가 미신신앙에 있어서 어떤 극락에 가야 하겠다든가, 언제 지구가 망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영성이 파괴됐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만은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 김삼웅, 「장일순 평전」(두레)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간단한 부탁

- 정현종

지구의 한쪽에서
그에 대한 어떤 수식어도 즉시 미사일로 파괴되고
그 어떤 형용사도 즉시 피투성이가 되며
그 어떤 동사도 즉시 참혹하게 정지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녁 먹고
빈들빈들
남녀 두 사람이
동네 상가 꽃집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의 감동이여!

전쟁을 계획하고
비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여
저 사람들의 빈들거리는 산보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저 저녁 산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도록
내버려둬 다오
꽃집의 유리창을 깨지 말아다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곽수정 구재원 권 순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성아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김재환 김진선 김정훈 이진영a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태정 김태한 김현정 김현주 김혜라 김혜영 박영희 박지혜 박지혜 변재민 이소혜 서지온 신능수 신유식 신현일 엄은경 심영란 양정규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우경환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은종인 이순이 이정은a이준림 이지원 이창수 진선영 이치림 강상연 임광호 임선자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장기환 장현희 정원석 김현영 정택중 조영훈 최미자 최소라 고인성 최은미 최진성 최영은 최철수 곽권희 최형경 노진래 한지원 한훈식 권채영 허정호 현우영

감사헌금

강혜린 김선희 김영호 김용진 박효선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준호 곽혜자 김향자 노신후 박미혜 박재영 이현정 방종미 서효진 신기호 심재남 김성희 이범석 류정욱 이삼남 정용구 이시경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전근우 정학성 김현숙 채규현 채일석 한훈식 권채영 무명4

생일감사헌금

이형석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정화 김호식 최원영 오은영 윤선호 임선아 이미정 이미휘 이영하 장현희 함정희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쉼)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모집 :** 1부 마중물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1부 찬양대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화세미나 :** 청파교회 평화부가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다음 주일(30일) 오후 1:30 <한국인의 평화사상 : 원효, 정약용, 전봉준, 문익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3. **마중물 찬양대 특별 공개 특강 :** 다음 주일(30일)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합창발성과 연주법>을 주제로 (강사: 김해인 현 국립합창단원) 발성법 특강이 열립니다. 찬양대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4. **신앙실천 :** 이번 주 화요일은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입니다. 희생자들과 분단된 이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이재훈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이재훈	장원호	최경미	김재흥

6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정현숙 이완구		
	2부 헌금위원	안홍숙 황현성		

오늘 식당 봉사	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진정숙 최윤화 이은미 류형민 이미영 박기원 신정훈 이용석		
오늘설거지봉사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56-60세)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